

Global North Korea 논평

Towards a Successful Third US-North Korea Summit: Finding Convergence between Two Denuclearization Calculations (in English)



#US-North Korea Summit #Trump #Kim Jong-un
#Denuclearization

South Korea / 06.Mar.2019
Think Tanks / East Asia Institute (EAI)
Young-Sun Ha

For Kim Jong Un, Trump is the Best, and the Last, Opportunity (in English)



#second summit #US-DPRK #Trump #Kim Jong-un

South Korea / 15.Feb.2019
Think Tanks / East Asia Institute (EAI)
Seong-ho Sheen

North Korea's New Year's Address and Prospect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2019 (in English)



#New Year's Speech #Kim Jong Un #Summit #Nuclear Issue

South Korea / 21.Jan.2019
Think Tanks / East Asia Institute (EAI)
Chaesung Chun

Global North Korea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논평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기존의 다른 웹사이트와 달리, 권위있는 정기 논평을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아카이브 기능을 넘어서, 보다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다.

국내외의 대표적인 북한 혹은 안보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집필하여 웹사이트의 논평 페이지에 별도로 게재하고 있다. 정기 논평도 국가 혹은 기관으로 분류하여 방문자가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NEWSLETTER

GLOBAL NORTH KOREA | EAI

동아시아연구원 뉴스레터 구독자는 Global North Korea 논평을 게재 즉시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뉴스레터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Global North Korea 홈페이지의 'Contact Us' 항목을 통해 구독할 수 있다.



EAI
동 아 시 아 연 구 원

주 관
(재) 동아시아연구원



UNIKOREA FOUNDATION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후 원
(재) 통일과나눔

본 대북 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에 관해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백진경 연구원 (북한·안보 연구)
Tel. 02-2277-1683 (내선 209)
Fax. 02-2277-1684
E-mail. j.baek@eai.or.kr

www.globalnk.org



대북 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GLOBAL NORTH KOREA

동아시아연구원

KOREA

GLOBAL NORTH KOREA

대북 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북핵을 비롯한 북한과 한반도 문제의 연구와, 관련 정책의 개발을 위한 지적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자 2018년 “대북 복합전략 영문 종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해외 연구기관들이 대북 전략 개발 및 북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한국의 시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는 한국의 시각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의 연구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 및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토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lobal North Korea는 아카이브 성격의 웹사이트로서, 주요 4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정부 발표문, 연구 보고서, 주요 언론 보도, 논평들과 북한의 주요 자료들을 관여(Engagement), 자구(Internal Transformation), 제재(Sanctions), 억지(Deterrence)라는 ‘4대 대북 복합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추세 변화 통계를 제공하여 4개국들의 대북 인식 차이는 물론, 대북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북한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전문가 논평(Commentary)의 게재로 보다 높은 수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대 대북 복합 프레임워크

Global North Korea는 각국 발간 출판물, 정부 발표문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4대 대북 복합전략에 따라 분류한다. 이 4대 대북 복합 프레임워크는 색깔 별로 구분이 가능하여, 각국 정부의 입장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관여 (Engagement)

북한의 핵 개발은 군사적 목적과 동시에 냉전 종식 이후 생존을 위한 정치, 외교, 경제적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비핵화 이후 북한의 생존 및 발전의 청사진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 선언, 북한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관계 수립, 대북 경제교류, 협력 등은 관여 정책의 중요 내용들이다.

자구 (Internal Transformation)

북한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북한은 민주주의, 시민사회, 시장경제, 개방적 국제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더라도 정상국가 건설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내부 변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의 모색과 실천은 주변국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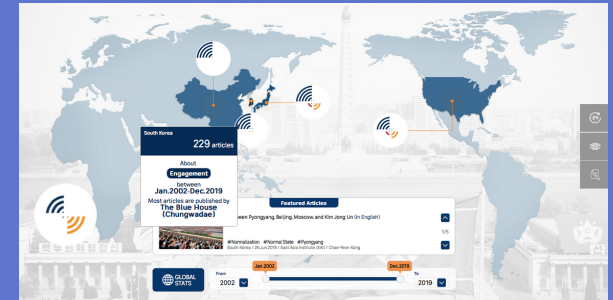
제재 (Sanctions)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는 주로 국제연합 결의안을 통해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해왔다. 제재 정책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 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의 방법, 기간, 강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북한의 핵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으며, 북한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비핵화의 필요조건이다.

억지 (Deterrence)

강력한 군사적 억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타격 순환(Kill chain) 체계, 그리고 대규모 반격 수단들을 개발해왔다. 한미동맹 또한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미국은 역외의 핵억지체제를 제공해왔다.

지도(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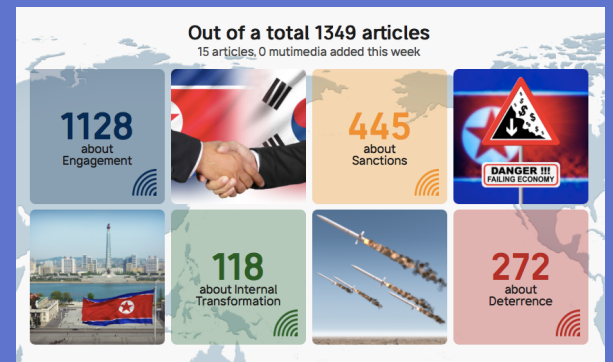
웹사이트 첫 화면에서 북한을 둘러싼 각국 정부와 기관들의 입장과 인식 차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하단의 연도 설정을 통해 시기별 자료 수집 통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기관과 국가 (Organizations & Countries)

GLOBAL NORTH KOREA EAI	Organizations	Countries	Archives
Organizations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NK TANKS MEDIA	Governments United States China	
	President Trump Twitter (POT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Congress(House and Senate Committees)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U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기관별 분류 페이지에서는 관련 행위자들을 정부, 국제기구, 싱크탱크, 미디어로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했다. 국가별 분류 페이지에서는 특정 국가의 전체 발간물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터링 기능을 통해 원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아카이브 (Archives)



아카이브 페이지에서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혹은 기관 구분의 제약없이 이용자가 원하는대로 게시된 글들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이다.